

신뢰 속에서 함께 커가는 무재해

제37호 동부정밀화학(주) 전주공장 안병학 공장장


얼마전 실시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고 한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고 희생하시는 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큰 사랑으로 회사를 돌보고 직원들의 안전에 힘쓰는 이가 있다. 동부정밀화학(주) 전주공장 안병학 공장장이다.

1994년 살균 및 살충제, 제초제 등의 생산을 시작으로 설립된 동부정밀화학(주) 전주공장은 「농약 = 동부」라는 방정식을 만드는데 앞장선 곳이며, 공장 가동 10년째인 2003년 10월 동부그룹 화학공장 13개 중 공장환경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기동력과 추진력으로 뚝뚝 뚫은 곳이다. 이러한 이력을 보다 확고히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안병학 공장장은 직원들과의 벽을 없애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경영을 위해 혼신을 다한다.

어머니로, 직장동료로, 직원과 교감하며 무재해 동부정밀화학(주) 전주공장을 이끌어가는 안병학!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공장장!



모두가 함께 하는 실천하는 안전으로 무재해 일귀 김범수의 '가슴에 지는 태양'을 즐겨 부른다는 그는 운동이나 회식 등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하고 그들과의 교감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 나간다고 한다. 아무리 자동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수나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서로를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점검하고 순찰한다. 전 직원이 도요타자동차를 견학하고 그곳의 TPS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동부정밀화학(주)만의 DIS(Dongbu Innovation System, 동부혁신체계)로 탄생시켜 3정, 5S 활동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전주공장, 쾌적한 전주공장으로 만들어 나간다. 말로 하는 안전이 아닌, 체계를 갖춰 실천할 수 있는 안전으로 일귀나가는 것이다. 또한 연 1~2회 안전이나 공장혁신 등을 주제로 표어를 공모하여 포상하고 채택된 작품은 공모한 직원의 이름을 삽입하여 사내 곳곳에 부착하고, 이 모든 활동은 협력업체 직원들도 함께 한다. 전주공장 협력업체 직원들도 이곳의 식구이며 동반자인 것이다.

작년 12월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무재해 8배수라는 귀한 탑을 세울 수 있었다는 안병학 공장장은 그 패기와 노력을 이어나가 무재해 9배, 10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안전을 잘 이뤄가는 곳에서만 제품이 우수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그는 전주공장 식구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리자며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성호연 기자)